

‘민주 텃밭 돌풍’ 조국, 광주·전남 찾아 감사 인사

5·18묘지 참배·강기정 시장 만나 DJ 생가 방문·총선승리 보고대회 더민주연합 제치고 비례대표 '1위' 지지층 사수 노력·공약 실천 약속

제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인 광주·전남·전북에서 돌풍을 일으킨 조국혁신당이 선거 이후 첫 행선지로 호남을 선택했다. 조국 대표의 지역 방문은 정치세력 교체에 대한 신호탄을 쏘아올림과 동시에 지지층 사수를 위한 움직임으로 분석된다.

22일 조국혁신당에 따르면 조 대표는 이날 전주 방문을 시작으로 23일 광주·전남을 찾아 이번 총선 승리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할 계획이다.

조 대표는 23일 오전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광주시청에서 강기정 시장과 차담회를 갖는다. 이후 광주시의회에서 당선인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오후 2시에는 신안 하의도 김대중 대통령 생가를 방문하고, 오후 7시에는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광주·전남총선승리 보고대회를 열고 시민들과 대화를 갖는다.

조국혁신당은 이번 총선 비례대표 투표에서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호남에서 가장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다. 광주 47.7%, 전북 45.5%, 전남 44%로 민주당의 심장부로 평가되는 호남에서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당보다 우위를 점했다. 조국혁신당은 광주에서 민주당연합(36.2%)보다 11.5%p 앞섰고, 전북에서는 7.9%p, 전남에서는 4%p 높은 득표율을 보였다.

호남의 압도적 지지를 바탕으로 조국혁신당은 후보주자임에도 비례대표 의석수 46석 중 국민의미래 18석, 더불어민주당 연합 14석에 이어 12석을 차지하는 이변을 만들어냈다. 개혁신당 비례의석은 2석이다. 조국혁신당이 내건 '지민비조' (지역

구는 민주당·비례대표는 조국혁신당) 슬로건이 현실화된 셈이다.

앞서 조 대표는 지난 2월13일 고향인 부산을 찾아 신당 창당을 선언한 직후, 다음날인 14일 곧바로 광주를 찾았다. 고향인 영남에서 창당을 선언했다면 호남에선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신당의 정치적 지향점을 강조했다.

또 총선 직전인 지난 9일 광주를 방문해 동구 충장로 우체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나라 민주화를 이끌게 된 출발점은 광주와 전남이다. 제가 추구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가치와 모든 출발은 광주"라고 밝히며 광주를 향한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조국혁신당 관계자는 호남에서 높은 지지를 받은 것에 대해 "총선 전 각종 여론조사를 통해 알 수 있듯 조국혁신당의 지지율이 가장 먼저 오르기 시작한 곳은 광주·전남·전북 등 호남권이었다"며 "이는 총선에 있어 호남지역 유권자들이 전국 어느 곳 보다 정권심판에 대한 열망이 컸던 것을 반영한다."

또 "3년은 너무 길다"는 슬로건과 함께 정권심판을 강조하면서 야권 강성 유권자들의 민심을 잡을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호남 유권자들은 다른 정당보다 조국혁신당에 힘을 실어주면 공약한 바를 지키겠다고 생각하신 것 같다"고 말했다.

조국 대표 역시 지난 9일 광주에서 지지율이 높은 배경에 대해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유권자가 원하는 것과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 텃밭에서 우위를 점한 만큼, 현 지지층을 사수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조국혁신당 관계자는 "열렬한 지지를 보내준 호남권에 보답하기 위해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도 꾸준히 마련해 나갈 것이라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unji.kim@jnilbo.com



광주 북구, 어린이 평두메습지 탐사대 광주 북구 해성유치원 원생들이 22일 북구 평두메습지에서 개구리알과 올챙이 등 습지생물을 관찰하며 자연의 소중함과 기후위기 등 환경문제를 배우고 있다. 북구는 최근 무등산국립공원과 함께 평두메습지를 광주 최초 람사르 습지로 등록하기 위해 추진 중이다. 나건호 기자

광주·전남, 내달부터 코로나 위기단계 '관심' 하향

병원급 마스크 해제·자율방역 전환 저소득층 치료제 등 일부 지원 유지

광주시와 전남도가 5월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를 현행 '경계'에서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으로 하향한다. 이에 따라 취약시설 마스크 착용과 선제검사 의무가 해제되는 등 자율적 방역으로 전환된다.

22일 광주시·전남도에 따르면 이번 위기단계 하향은 지난 19일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추진 방안' 발표에 따라 시행한다.

방역조치는 그동안 적용됐던 법적 의무를 해제하고 자율적 방역 실천으로 전환

한다. 병원급 의료기관,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내 마스크 착용과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선제검사는 의무에서 권고로 바뀐다.

확진자 격리 권고 기준은 현행 5일에서 '코로나19 증상 호전 후 24시간'으로 완화된다.

검사비는 무증상자에 대한 지원은 없어지고, 먹는 치료제 대상군, 의료취약지역 요양기관 환자, 응급실 내원환자·중환자실 입원환자 중 유증상자에 대해서는 신속항원검사(RAT) 비용을 기존 6000~9000원대로 지원한다.

입원치료비는 건강보험은 계속 적용하

고 일부 중증환자에게 지원하던 국비지원은 종료한다.

먹는 치료제는 무상지원에서 1인당 본인부담금 5만원을 받는 것으로 변경하고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은 무상 지원을 유지한다.

코로나19 백신은 2023-2024 절기까지만 전국민 무료 접종을 유지하고 2024-2025 절기부터는 65세 이상 고령층,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에만 무료 접종한다.

감시·대응체계는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양성자 감시를 중단하고 독감 등 기타 호흡기 감염병과 함께 호흡기 표본감시체계로 전환한다. 노병하·곽지혜 기자

全南日報 가 소상공인을 응원합니다!

나눔테크는
생명존중의 실천으로
의료기기를 생산하는 기업

*이 제품은 '의료기기'이며, '사용상의 주의사항'과 '사용방법'을 잘 읽고 사용하십시오.

직장과 가정, 어디서든 발생하는 심장마비 사고!
**AED(자동심장충격기)로
대비할 수 있습니다.**

AED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AED 역할
심실세동 또는 심실빈맥으로 인해 심정지 응급환자에게 전기 충격을 주어 정상적인 심장의 리듬을 회복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응급장비

- 품 목 명 : 저출력심장충격기
- 사용목적 : 전기 충격을 직접 혹은 흉벽에 놓인 전극을 통하여 심장에 보냄으로써 심방이나 심실의 세동을 제거하는 데에 사용하는 기구.

구입 및 렌탈 : (주)나눔테크 1577-8515 www.nanoomtech.co.kr

광고심의일: 심의번호 22022-GN1-28-0016 (유효기간 25.07.28)